

문명 뒤흔든 자연재해,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재난의 세계사

루시 존스 지음, 권예리 옮김



1923년 관동대지진이 발발했을 때 무고한 한국인의 희생당했다. 당시 일본은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책임을 돌릴 대상을 찾았다. 재난 앞에서 희생자를 찾으려는 심리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돼 있다. 물론 한편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심리 또한 있다.

홍수와 지진, 화산 같은 자연재해는 파괴와 비극을 낳는다. 문제는 언제 어느 시기에 그 재난이 닥쳐올 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2천 년 전 베수비오산이 분화해 폼페이로 고매했다. 수천 명의 사람이 화산쇄설류와 독성 기체로 죽음을 맞았다. 한때 번영의 도시였던 폼페이가 화산재에 묻힌 것은 불과 며칠의 시간이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있다. 왜 사람

들은 활화산 아래 도시를 건설했을까. 이유는 화산토에 있었다. 배수가 잘 되고 비옥해 농사를 짓기에 좋은 곳이었다.

마찬가지로 인류 4대 문명의 발생지는 모두 강이었다. 농사에 적합한 지역이지만 한편으로 홍수가 발생하는 곳이었다. 문명이 홍수와 치수라는 상반된 상황에 따라 전개된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인류문명을 흔든 자연재해의 역사를 조명한 책 '재난의 세계사'가 발간됐다. '미래의 자연재해에 맞서기 위한 과거로부터의 교훈'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재난과 이를 극복할 힘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캘리포니아공과대학 지진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는 루시 존스로, 미국 전역의 '위험 감소를 위한 과학 활용'이라는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정의하는 키워드는 많다. 문화, 도시, 건축, 기술, 환경, 보건 등 다양하다. 재난을 키워드로 분석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번에 출간된 루시 존스의 흥미로운 역사책이자 위기 대응 매뉴얼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지난 2004년 남아시아 지진이 발생할 당시, 이후 알려진 쓰나미로 희생이 컸다. 2009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때도 진로 등을 예상했지만 준비 부족이 화를 키웠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식품, 식수, 하수도, 전력을 복잡한 공급망에 의존할 수



석고를 벗자 모습이 드러난 2000년전 폼페이 희생자들의 시신.

밖에 없는 구조다.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인 40억 명이 도시에 산다는 것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사회의 약한 고리부터 피해를 입는다. 1927년 미시시피강 홍수 당시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주장했고 정치적 이념은 재난 구호의 걸림돌이 됐다. 또한 당시 만연한 인종차별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는데, 흑인들이 제방 보수에 강제 동

원됐다 때죽음을 당했다.

책은 재난이 사건에 그치지 않고 역사를 바꾸는 측면도 다룬다. 1775년 리스본 지진은 수만 명의 사망자를 낸 참사였다. 이를 계기로 유럽의 세속화 나아가 근대 과학과 철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1783년 아이슬란드 라키산의 분화가 가져온 이후의 변화다. 1만 명이 사망해 많은 피해를 입은 한편 뿔어져 나온 황이 성층권까지 치솟아 세계의 기온을 낮췄다. 그 결과 엘니뇨의 영향으로 세계 각지에서 기근이 일어났다. 특히



2009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휩쓸고 간 후 물에 잠긴 뉴올리언스 시내.

유럽에선 사회적 혼란이 가중돼 수년 뒤 1789년 프랑스대혁명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백두산과 한라산은 휴화산이지만 현재는 활화산으로 분류된다.

현대의 과학과 기술로 일정 부분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의 모든 현상을 알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저자는 캘리포니아주가 지진에 대비한

'셰이크아웃 시나리오'를 만들어 훈련을 기화하고 시설을 보강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과 행동 지침을 강조했다.

"인간은 자연재해 발생 시점이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무작위적이라는 사실을 받아 들여야 한다. 우리는 각자가 겪을 대재난의 발생 시점을 영원히 예상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대재난이 닥쳤을 때, 거리에 상관없이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당사자가 될 것이다." <놀와·1만7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미얀마의 역사문화와 불탑

천득염 의 지음

미얀마의 불탑을 통해 불교문화를 다각도로 조명한 책이 발간됐다. 전남대학교 천득염 석좌교수(건축학부)와 최정미·염소영·김소영 연구자 등이 펴낸 '미얀마의 역사문화와 불탑'이 그것. 지금까지 불탑의 발생과 전래, 변모양상을 살펴보는 책을 발간해온 저자들은 이번에 미얀마의 사원과 불탑을 매개로 불탑의 원류와 이의 변모양상에 초점을 맞췄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제1편 '미얀마의 역사와 문화'에서는 웃음 가득한 미얀마인들의 일상적 삶과 미얀마의 역사, 문화를 소개하며 제2편 '미얀마의 불탑'에서는 독특한 불교문화를 토대로 한 미얀마의 불교사원과 불탑에 대해 들여다본다. 천 교수는 지난 2002년 교토대학 건축학과에서 연구년을 지낼 때부터 지금까지 불탑의 의미와 형상, 양식상의 조영원리, 국가 간의 변모와 차이를 통해 불교문화유산의 원리 등을 연구해왔다.

이를 위해 부처의 흔적을 찾아 수년간 티베트,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라오스, 인도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발로 뛰고 눈으로 본 연구들을 모아 '불탑의 아시아 지역 전이양상' 시리즈를 펴냈다. '인도불탑의 의미와 형식', '동양의 진주, 스리랑카의 역사와 문화', '인도불탑의 형식과 전래양상'이 그 결과물이다. 이들 책은 불탑을 매개로 고대 불교부터 오늘의 불교문화를 조망한다.

천 교수는 "미얀마 불탑에 대한 연구서로서는 이 책이 처음이라 생각되나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미얀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아시아문화공동체가 공유하는 연대와 정서적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2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스파이의 유산

존 르카레 지음, 김승욱 옮김

나이 지긋한 전직 요원 피터 길럼은 프랑스 외곽의 어느 농장에서 은퇴생활을 즐기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잡배원이 편지 하나를 배달한다. 길럼은 영국정보부, 즉 '서커스'에서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직감한다. 런던에 온 길럼은 밤무렵장인 베니와 역사 담당 로라를 만나 그동안의 사정 얘기를 듣는다. 냉전 시대 '윈드폴 작전'으로 인해 사망한 한 요원의 아들과 한 민간인의 딸이 정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유족들은 사망의 원인이 정보부와 길럼 그리고 그의 상관 스마일리에게 있다고 믿는다.



스파이 문학의 거장으로 일컫는 존 르카레의 신작 '스파이의 유산'은 은퇴한 스파이를 소환한 이야기다. 더 타임스, 가디언을 비롯한 찬사와 아울러 영화감독 박찬욱의 추천사가 눈에 띈다. 박 감독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르카레는 내가 가려온 부분이 어딘지 안다는 것이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계에 살지만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믿고 싶은 마음 말이다"고 평한다.

런던에 온 길럼과 달리 상관인 스마일리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 그렇게 길럼은 수십 년 전 자신이 수행했던 일들을, '틀림'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렀던 여성과의 기억을 강제로 끄집어낸다. 감시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낡은 서류철을 읽어 나가는 길럼의 머릿속으로 지난날의 사건이 되살아난다.

이번 소설에는 르카레의 전작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1663), '은밀한 순례자' (1990)의 스마일리라는 인물이 다시 등장한다. 이전 작품들은 대체로 냉전 시대 첩보전을 다뤘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반세기토 넘은 일을 들춰내 이전의 주인공과 그의 부하를 불러낸 것일까.

<열린책들·1만5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백남준

남정호 지음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 미디어를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미디어 아트 선구자, 개척자로 불리는 백남준에 관한 책이 출간됐다. '백남준-동서양을 호령한 예술의 창기조각'이 그것.



기자 출신인 저자 남정호는 2006년 뉴욕 특파원으로 백남준의 장례식을 취재하면서 그의 일본인 아내이자 전위예술가인 구보타 시게코와 인연을 맺은 뒤 수년에 걸쳐 뉴욕을 오가며 인터뷰했고, 이를 바탕으로 백남준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추앙받는 백남준이지만 정작 그의 이름이 한국 사회에 알려졌 것은 1984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생중계 작품인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 전파를 타면서부터다. 이 작품명은 디스토피아 소설 '1984'를 쓴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을 반어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2500만 명이 시청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것도 잠시 2006년 백남준이 74세의 일기로 타계하면서 관심은 점점 사그라들었다. 지금은 그의 예술 세계를 제대로 조망한 서적조차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며, 오히려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높이 인정을 받고 있다.

책은 1장 '나의 환희는 거칠 것 없어라', 2장 '일본에서의 운명적인 만남', 3장 '세상에 없던 새로운 예술을 꿈꾸다', 4장 '끝나지 않은 백남준의 예술'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백남준의 흔적을 찾아 그의 삶과 작품 세계를 재구성한다. 특히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백남준의 일본 시절이 담겨 있다. 작품의 모티브가 된 사건에서부터 영감을 준 주변 인물들과 사상에 이르기까지 백남준 예술의 시작과 끝을 아우른다.

<아르테·1만8800원>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